

## OG5 전통마을에 있어서 마을길의 유형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병철<sup>1</sup>, 이은엽\*, 박종덕<sup>2</sup>

<sup>1</sup>중부대학교 건설공학부,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sup>2</sup>청주대학교 대학원

### 1. 서 론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 경제개발지향정책,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해 서구적인 개념의 도로가 도시와 농촌에 도입되면서 전통의 길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새로 조성된 전통마을이나 야외박물관, 민속촌 등은 그 분위기가 전통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안계복, 1999). 이는 전통의 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전통공간에 대한 연구 및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조성 하는 데는 길과 마당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까지 불규칙성을 띄고 있는 듯한 전통마을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전통적인 마을길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김윤하·안계복, 2000)

선행연구들은 현대도심지역에 대한 도로, 가로, 길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전통마을길과 관련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전통공간과 관련된 기존 연구논문으로 안계복(1999)에 의해 한국전통마을에 있어 갈림길을 유형화시키고 형태적인 특징을 밝힌 연구가 있으며, 평지전통마을 갈림길의 중심각과 곡률반경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김윤하·안계복, 2000). 김용미(1985)는 충북 영동의 몇몇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길의 유형(나뭇가지꼴, 활꼴, 그물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전통공간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갈림길 혹은 개활지에서 생긴 길을 대상으로 하여 중심각과 곡률반경에 대한 수학적접근 방식을 취했거나 유형과 형태적 특성을 밝힌 연구가 대부분으로 마을 전체의 길에 대한 구조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마을길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길의 유형과 형태적인 특징을 밝힘으로써 전통적인 길의 형태를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외래문화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전통마을 중 평지형인 하회마을과 준구룡형인 외암리 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01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 졌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예비조사, 실측조사를 통해 마을길의 물리적 특성 등을 규명 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대표적인 평지형, 준구릉형의 전통마을길을 대상으로 마을길의 물리적 구성 형태를 파악하였다.

한국전통마을에 있어 마을길은 크게 어귀길과 안길, 골목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어귀길, 안길(순환로), 안길(관통로), 트인골목길, 막힌 골목길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었다.

전통마을길의 경우 트인골목길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을길의 위계별 갈림 형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분기점이 교차점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분기점과 교차점 모두 세갈래 길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다만, 안길(관통로)와 트인골목길의 경우 분기점 보다는 교차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통해 마을간의 접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마을길은 위계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계별로 적합한 활동과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마을길의 길이와 폭을 분석한 결과 안길(순환로)의 경우 연장길이가 작게는 31~40m, 길게는 120m이상으로 나뉘었으며, 안길(관통로)의 경우 평지형은 다양한 분포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준구릉형은 31~90m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트인골목길은 다양한 길이의 분포유형을 나타내었으며, 막힌골목길의 경우는 30m이하의 길이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전통마을길의 폭은 1~6m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마을길의 폭은 위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간의 접촉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안길(관통길)과 트인골목길은 주로 3~4m 내외의 폭을 구성하고 있었다.

전통마을길은 휴먼스케일 개념의 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공간규모가 조성되어짐으로써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향상시켜 줄 수 있고 보다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김윤하·안계복, 2000, 평지전통마을 갈림길의 중심각과 곡률반경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8(2) p.17

김용미, 1985한국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상섭, 1998,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외부공간 조영기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2(1), p1-14

안계복, 1999, 전통마을에 있어서 갈림길의 유형과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1), p.102-109

이범재, 김병윤 역, 외부환경디자인, 기문당, 1984, p.14-21